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사단
법인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 김태은
(우 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 - 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자미디어 ☎ (02)263-3598

제4권 제9호 통권39호

9

1998

생산지수(PI)의 중요성과 향상대책

IMF체제 이후 누구나 경제용어에 익숙해져 있다. 영어 약자로 표기되는 많은 전문용어가 어느새 생활에 일부분이 되었듯이 육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용어 PI (Product Index : 생산지수) 를 살펴본다.

●생산지수 (PI) 란 무엇인가?

국가경제 성적표가 GNP, GDP와 경제성장률 (EGR : Economic Growth Rate) 로 표시되고 기업활동 결과가 대차대조표 (B/S : Balance Sheet) 와 손익계산서 (P/L : Profit and Loss statement) 로 요약된다. 육계업에서 입추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결과를 요약해주는 중요한 항목 4가지를 나타내 준다. 당연히 지수가 클수록 한 회전당 생산성이 우수한 것이다. 또한 생산지수는 농장의 수익성을 예측하게 해주고 안전성과 건전성, 향후의 성장 가능성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치가 되곤 한다.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가?

PI는 수당 평균 출하체중과 육성율을 곱한 수치를 사육일수와 사료요구율로 나누어서 100을 곱한 것이다.

예) 1.72Kg 출하체중에 97% 육성율, 38.5일령에 출하하고 사료요구율이 1.90인 경우
 $(1.72 \times 97) / (38.5 \times 1.90) \times 100 = 228$ 이 된다.

●어떤 항목이 중요한 요소들일까?

수치가 높으면 좋은 것이므로 당연히 분자항목에 속한 출하 체중과 육성율이 높아야 된다. 반면에 분모항목인 사육일수는 짧을수록, 사료요구율도 낮을수록 농장 생산성은 개선되는 것이다. 농장의 수익은 위와 같이 PI가 높을수록, 같은 병아리 시세, 출하시세, 사료비와 생산비가 들었다해도 추가수익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된다. 농장간의 수익율과 향후 성장 가능성, 이에 따른 안전성 등은 점차 한 사육회전당 수익규모가 작아지는 축산업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생존여부와 구조조정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생산지수는 어떻게 향상되는가?

첫째, 입추초기의 생존율, 특히 7일간의 초기 생존율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입추실의 환경인 온습도, 산소량, 바닥깔짚두께, 음수정도와 사료입분이 조기정착, 조명등까지 위의 환경이 비슷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입추가 전문용 사료급이를 권장하고 싶다. 초기 성장이 너무 좋으면 복수증 발생이 높고 폐사가 높다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생존율 향상과 초기근골 발달이 좋은 계군들의 출하체중이 높은 것이 더 수익에서 유리하다.

둘째, 육성율을 좌우하는 각종 소화기성, 호흡기성 질병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흔히 나타나는 콕시듐, 대장균 등은 입추전 소독과 바닥깔짚의 처리 등으로도 상당기간 발병일자를 후기쪽으로 연기해주는 효과가 있다. 적정사육밀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급이·급수 면적의 확대와 산소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환기량 증가를 해주는 것이 육성율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빠른 출하를 유도시켜야 한다. 비슷한 환경과 동일한 증계장에서 공급한 병아리간에도 영양공급과 환경에 따라 목표체중 도달일령에는 차이가 많다. 전기사료는 근골과 내장, 소화기관의 발달이 잘 되도록 높은 에너지와 아미노산이 풍부한 사료공급이 필요하다. 후기 사료는 단위시간당 섭취량이 많은 펠릿사료로서 전기보다 에너지가 당연히 더 높아야 후기증체가 빨리 완성된다. 단가비교보다 사료 영양수준이 비교되어야 하고 첨가제 수준까지 살펴볼 때 비싼 사료가 kg 당 생산비를 낮춰주므로 더 경제적인 사료가 될 수 있다.

넷째로, 사료허실을 줄이고 음수량이 증가되어야 사료요구율이 좋아진다. 같은 수준의 영양소를 가진 사료지만 허실이 적고 충분한 음수가 될 때 효과는 상승된다. PI지수의 상승으로 IMF불황을 극복하는 모두가 되길 기원한다.